



The Spook's Curse

## 일곱 번째 아들 02 파멸의 저주

조셉 딜레이니 장편소설 | 김옥수 옮김 | 400쪽 | 무선 | 변형판(135\*195) | 12,800원  
ISBN 978-89-491-9240-6 04840 | 978-89-491-9237-6 (세트) | 978-89-491-9241-3 05840 (전자책)  
발행 날짜 2013년 7월 5일

벤 반스 주연 영화 「일곱 번째 아들」의 원작!  
전 세계 29개국 독자가 열광한 걸작 영국 판타지

**당신의 간을 쫓기하게 만들 전설이 지금 시작된다**

- ★★★★★ 「해리 포터」를 읽고 자란 세대에게 강력 추천한다.—《더 타임스》
- ★★★★★ 판타지 독자들이 찾는 모든 것이 이 소설에 들어 있다.—《인디펜던트》
- ★★★★★ 오싹한 스토리 그리고 유령 사냥꾼과 그 제자의 활약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된다.  
—《더 선데이 타임스》
- ★★★★★ 어두워진 뒤에는 절대 읽지 마라.—아마존 UK 독자 서평 중

영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이야기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중독성 있는 호러 판타지 시리즈 「일곱 번째 아들」, 그 두 번째 이야기 『일곱 번째 아들2: 파멸의 저주』가 까멜레옹에서 출간됐다.

일곱째 아들이 일곱 번째로 낳은 아들이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두운 기운을 보고 느끼는 주인공 토머스. 마녀 집안에서 태어나 철저히 마녀로 키워진 신비한 소녀 엘리스. 육십 년이 넘도록 카운티를 지켜 온 최고의 유령 사냥꾼 존. 점점 힘을 키워 가는 암흑 세력과 세 사람의 가슴 떨리는 대결을 그린 이

시리즈는 전 세계 29개국 독자들을 열광시키며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를 잇는 영국 판타지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 조셉 달레이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는 틈틈이 소설을 집필, 마침내 이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영국을 대표하는 판타지 작가 반열에 들어섰다. 시리즈의 첫 권인 『일곱 번째 아들1 : 마녀의 복수』는 2006년 각각 햄프셔와 세프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햄프셔 북 어워드 대상, 세프턴 북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뉴욕 도서관 '100권의 책', 미국 도서관 협회 '베스트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곱 번째 아들』 시리즈는 2004년 영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꾸준히 출간, 2013년 말 『Spook's 13(제목 미정)』을 끝으로 십 년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외전 세 권을 포함해 모두 열여섯 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이 시리즈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위키아'에 등장인물들과 그 상관관계, 이미지 등을 자세히 업데이트하는 등 뜨거운 성원을 보내지 않았다면 끝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워너브라더스 사가 벤 반스, 알리시아 비칸테르, 줄리언 무어 등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판타지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시리즈가 될 것이다.

## ■ 본격적으로 오싹해진 이야기

### 어두워진 뒤에는 절대 읽지 마라

전편 『일곱 번째 아들1 : 마녀의 복수』가 장대한 시리즈의 프롤로그로, 주요 인물들과 전체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면 『일곱 번째 아들2 : 과멸의 저주』는 암흑 세력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마녀 멀킨 대모와의 대결로부터 여섯 달 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조차 무서워했던 토머스는 어느덧 어엿한 유령 사냥꾼의 도제로 커 가는 중이다. 그런 토머스가 유령 사냥꾼 대신 혼자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2권은 시작된다.

토머스는 암흑 세력을 가둘 구덩이를 파는 일꾼들, 막음을 만들어 온 석공, 그리고 암흑 세력의 공격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지휘해 작업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않다. 일꾼들은 어린 도제가 미덥지 않고, 석공은 아픈 딸을 돌보러 한시바삐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 상대는 보가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살인광'이며, 그 '살인광'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아님 유령 사냥꾼의 형 그레고리 사제다. 이 와중에 토머스의 머리에서는 보가트를 가두려다 죽은 전 도제 빌리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사제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고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토머스는 과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 『일곱 번째 아들2 : 과멸의 저주』, 독자들은 전편을 뛰어넘는 오싹함에 조여 오는 심장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 ■ 강력하게 부활한 고대 악령 ‘파멸’ 이십 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파멸에게 압살당하는 것과 재판소장에게 붙잡혀 화형당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끔찍한지 모르겠어.”

이 불행한 사건으로 그레고리 사제가 세상을 떠나고, 유령 사냥꾼과 토머스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대성당 마을로 향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이십 년 전 유령 사냥꾼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고대 악령 ‘파멸’과의 재대결이다. 대성당 마을 지하 납골당, 깊은 굴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제들을 현혹시켜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지하로 내려온 사람들과 동물들을 납작하게 눌러 죽이고 그 뼈에 남은 추억을 먹고사는 파멸. 이 악령은 이제 늙고 힘 빠진 유령 사냥꾼과 아직도제인 토머스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기만 하다. 여기에 사람들을 마녀와 마법사로 몰아 끔찍하게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채는 종교 재판소장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일곱 번째 아들」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쉴 새 없이 강력한 적들을 등장시켜 일찌감치 토머스에게 감정 이입한 독자들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는 한편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기 때문이다. 여자라면 일단 경계하고 보는 유령 사냥꾼의 놀라운 과거와 신비로운 어머니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된 토머스가 혼란에 빠지는 부분이나 평생 사람들을 대신해 암흑 세력을 막아 온 유령 사냥꾼이 도리어 사악한 자로 몰려 궁지에 빠지는 상황 등은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한다.

한층 깊어지는 고민과 함께 어엿한 유령 사냥꾼으로 성장해 가는 토머스의 눈부신 활약, 그리고 전편에서 희미한 연심을 보였던 엘리스가 언제쯤 다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일곱 번째 아들2 : 파멸의 저주』다.

## ■ 차례

1장 호르쇼 살인광	10장 여자애가 뺨은 칩	19장 돌무덤
2장 레이미어 마녀	11장 유령 사냥꾼 재판	20장 어머니의 편지
3장 파멸	12장 은대문	21장 희생
4장 대성당 마을	13장 화형식	22장 약속은 약속이다
5장 장례식	14장 아버지의 이야기	
6장 지옥과 맺은 계약	15장 은사슬	토머스 J. 워드 일기장
7장 탈출 그리고 체포	16장 엘리스가 들어갈 구덩이	
8장 피터 형제 이야기	17장 다시 나타난 재판소장	웁긴이의 말
9장 지하 묘지	18장 산자락에서 낀 악몽	

## ■ 줄거리

이십 년 전, 유령 사냥꾼을 죽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고대 악령 '파멸'. 대성당 아래 깊고 깊은 납골당에 갇혀 있는 그 악령이 서서히 힘을 되찾아 사제들에게 사악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유령 사냥꾼과 토머스 카운티 전역을 지배하려는 '파멸'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는 동시에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끄찍하게 화형시키는 종교 재판소장의 눈도 피해야 하는데…….

## ■ 책 속으로

“대성당 마을은 저주받았어! 내가 이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결한 괴물에게. 당시에 나는 그놈에게 당해 거의 여섯 달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지. 사실은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 그때 이후로 나는 두 번 다시 대성당 마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어차피 찾아갈 바에는 그 일까지 완벽하게 끝내야겠지. 아니야, 대성당 마을에 저주를 내린 놈은 살인광이 아니다. '파멸'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사악한 악령이다. 그 유형은 그놈 하나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힘이 커져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 56쪽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이 마차 쪽으로 달려가 남자 죄수에게 사과 한 알을 건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가족이 분명했다. 딸인 것 같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재판소장이 말머리를 가볍게 돌려 말발굽으로 여자를 내쳤다. 사과를 내밀던 여자가 한순간에 옆으로 나뒹굴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재판소장의 얼굴에서 잔인한 표정을 읽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를 보며 즐거워하는 듯했다. 마차는 덜거덕거리며 지나갔고, 잇따라 말을 탄 무장 호위 병사들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군중이 외치던 환호성은 “저들을 모조리 태워 죽여라!”라는 고향과 욕설로 돌변했다.

— 81~82쪽

파멸 본래의 형상을, 지하 묘지에서 조금씩 강력한 힘을 되찾고 있다는 파멸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었다. 비늘에 뒤덮인 몸뚱이는 잔뜩 긴장한 채 울퉁불퉁한 근육을 드러내며 웅크리고 있었고, 기다랗게 뻗은 날카로운 발톱은 입구에 걸친 돌 가로대를 움켜잡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는 끄찍한 것을 많이 봐 왔다. 하지만 그렇게 커다랗고 흉측한 두상은 처음이었다. 길쭉한 턱은 위로 굽어서 기다란 코와 금방이라도 만날 것 같았고, 사악한 두 눈은 다가서는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두 귀도 흉측하게 생긴 것이 커다란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했다. 캄캄한 지하 묘지에서 마주치고 싶은 형상은 결코 아니었다!

— 85쪽

“맞아, 파멸이 바로 원흉이야. 이번에는 그놈을 확실히 끝장내야 해. 형은 이런 일을 내가 반년이나 더 구경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사이에 무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불타서, 아니면 이번 겨울에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죽어 갈까?

지금 이 마을에는 지하 묘지에 이상한 게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해.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파멸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손에 넣었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육신을 띤 형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면 원래 모습으로, 작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악마의 화신으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은대문을 가볍게 열지 않을까?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리란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순 없어. 파멸이 더욱 강력한 힘을 갖추기 전에 지금 당장 대성당 마을에서 암흑 세력을 몰아내야 해. 그러니 한 번만 더 묻겠어. 열쇠를 만들어 줄 거야, 말 거야?”

— 100쪽

## ● 작가 소개

**지은이 조셉 딜레이니(Joseph Delaney)**

영국 랭커셔 주 출신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영상 미디어를 가르쳤다. 교사 생활 틈틈이 작품을 썼고, 마침내 「일곱 번째 아들」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으며 영국을 대표하는 판타지 작가가 됐다. 『일곱 번째 아들2 : 파멸의 저주』 발표 이후에는 교단을 떠나 집필과 강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일곱 번째 아들」 시리즈는 ‘홀 노커Hall Knocker’라는 랭커셔 주에 실재한다는 보가트와 한 사내에 대한 메모로 시작됐다. 작가는 여기에 랭커셔 주에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전설과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판타지, 호러를 절묘하게 결합해 익숙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냈다. 실제로 『일곱 번째 아들1 : 마녀의 복수』에 등장하는 ‘유령의 집’ 에피소드는 작가와 그 형제들이 어릴 적 겪은 실화다. 이 시리즈의 첫 책은 2006년 각각 햄프셔와 세프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햄프셔 북 어워드 대상, 세프턴 북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뉴욕 도서관 ‘100권의 책’, 미국 도서관 협회 ‘베스트북’으로 선정됐다.

「일곱 번째 아들」 시리즈는 전 세계 29개국에 번역, 300만 부 이상 판매됐고, 워너브라더스 사가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

**옮긴이 김옥수**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프리마 코리아에서 영미권 부장, 도서출판 사람과책에서 편집부장을 지냈다. 옮긴 책으로는 『파랑채집가』, 『비밀의 화원』, 『베네딕트 비밀클럽』,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 『아이, 로봇』, 『뱀파이어 다이어리』 시리즈 등이 있다.